

흙의 철학을 통해서 본 노년과 지혜 그리고 행복한 노화

양선이*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창조적 노화모델’을 통해 나이 들의 장점을 논해 보고 100세 시대의 노년의 삶의 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적 노화 모델을 받아들이면 노화의 장점을 들여다보게 되고 노인을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나는 이 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서 노인의 자질 중 지혜를 들어 논한다. 이를 위해 흙의 ‘발전적 감성progressive sentiment’ 모델과 ‘창조적 노화’ 모델의 근간이 되는 ‘발달지능’과 비교를 한 후 흙의 ‘발전적 감성’은 지혜를 노년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다음으로 나는 흙의 ‘차분한 정념calm passion’과 중용에 관한 논의와 토른스탐의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100세 시대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창조적 노화 모델, 발전적 감성, 지혜, 차분한 정념, 노년초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168).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일반적으로 서양의 문화에서 늙음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서양의 설화에서 늙은 마녀와 마법사는 거의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철학자들은 노년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둘 다에 관해 말했는데, 플라톤은 『국가』에서 노년은 신체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유덕한 것으로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의 노쇠는 영혼의 노쇠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노인을 악덕의 대표자, 탐욕,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진정한 우정은 없는 인간으로 묘사한다.¹⁾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서양의 철학자는 키케로로 알려져 있다.²⁾ 그는 노년의 부정적 측면은 활동성이 줄어들고, 신체를 허약하게 하며, 모든 쾌락을 빼앗아 가고,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각 단계에서의 고유한 특징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통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⁴⁾

최근 노년연구에서는 노년기의 특징을 의존과 쇠퇴 및 상실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노년기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노년까지 발달한다는 에릭슨Erikson (1963)의 8단계의 사회심리학적 발달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Rowe and Khan (1998)의 ‘성공적 노화’연구로 이어져 향후 백세 수명 세대에 맞춘 발달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노화’이론, ‘창조적 노화’이론, ‘노년 초월

1)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2010), 제 3장 참고.

2)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2010), 제 4장 참고.

3)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p. 29

4)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p. 29

Gerotranscendence' 이론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이와 같은 모델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흠의 감성주의 철학에서 발견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나는 1) 키케로의 영향을 받아 그의 덕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흠의 감성주의 철학을 통해 노년과 지혜에 관해 논해 보겠다. 이를 위해 흠의 '발전적 감성progress of sentiment' 이론⁵⁾은 최근 노년학에서 논하는 '긍정적 노화', 더 나아가서 '창조적 노화' 모델의 근간이 되는 '발달지능'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2) 흠의 '발전적 감성'은 지혜를 노년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3) 끝으로 흠의 '차분한 정념'⁶⁾과 '중용'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노년학에서 말하는 '노년 초월' 모델과 상통함을 보이고자 한다.

II. 노화에 대한 개념화 모델

1. 성공적 노화와 긍정적 노화

노년학에서 나이 들을 바라보는 주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개념은 '성공적인 노화'이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존 로우와 로버트 칸Rowe and Kahn (1998)이 제시한 개념이다. Rowe and Kahn은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질환과 장애를 겪을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들고 있다. 로우와 칸에 따르면

5) 발전적 감성 개념은 흠 주석가 아넷트 베이어가 흠의 이성 개념이 진보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A. Baire (1991) 참고. 그는 흠의 오성 개념이 순수 지성 개념에서부터 상상력, 정념, 반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흠이 <정념론>에서 논한 지혜 개념이 노년의 장점이 될 수 있다.

6) Hume (1978) 이하 필자는 『인성론』으로 번역하고 페이지 표기는 T. 로 하겠다.

나이가 들어도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서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이 유지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노화를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노인은 소수이므로 이러한 입장은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수정되었다.⁷⁾ 왜냐하면 정신이나 육체의 기능이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활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 또는 불편한 이들도 각자의 목적과 의미 속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성공적 노화 모델은 이런 사람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노인학에서 행복과 건강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건강지표는 행복과 상관이 높지 않고 주관적 건강지표와 행복간의 상관이 높으며, 암 같은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간의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조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⁸⁾ 마크 아그로닌 (2018)에 따르면 실제로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제안하는 성공적 노화에 실패할 경우, 특정 시점 이후로는 나이 듦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으며, 나이 듦은 윤리적으로 무시하거나 심지어 제거해야 할 부담에 가깝다는 인식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⁹⁾

성공적 노화 모델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견해가 로버트 힐이 제안한 ‘긍정적 노화’이다.¹⁰⁾ 로버트 힐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용기 있고, 삶의 변화에 맞춰 적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노년을 대하는 최상의 자세라고 본다. 이와 같은 상태는 질병과 장애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질병이나 장애의 유무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인 노화 모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나이와 관련된

7) 성공적인 노화 모델에 관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국내 연구로는 안정신 외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이 있다.

8) 정영숙 (2011), p. 26.

9)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04.

10)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05.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 중 몇 가지를 ‘선택’해서 가장 적절하고 달성하기 쉽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연습이나 실습을 더 많이 해서 능력을 ‘최적화’하고 어떤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활동이나 수행을 조절한다.”¹¹⁾

성공적 노화이든, 긍정적 노화이든,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가 공통적 요소이며 서구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다. 그런데 서구 문화권과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족 관련 요인, 즉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들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¹²⁾ 안정신 외 (2011)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연구에서는 개인성장과 관련된 ‘자아 및 현실수용’, ‘성격’, ‘변화에 대한 적응’, ‘긍정성’, ‘상상력’, ‘창조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서구와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요소의 차이점이다.¹³⁾ 조공호 (2006)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은 한국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학사상에서 제시되는 이상적 인간관인 군자와 성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군자와 성인은 자기수양과 대인관계의 조화,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적 행복과 적응에 초점을 두는 성공적 노화와 달리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그는 말한다.¹⁴⁾

안정신 외 (2011)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노화에 대한 개념화에서도 서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¹⁵⁾라고 주장한다.

11)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05.

12) 안정신 외 (2011), p. 48.

13) 안정신 외 (2011), p. 48.

14) 조공호 (2006) 참조.

이 논문에서 나는 이와 같은 성공적 모델에 관한 동서양의 비교 모델보다는 서구의 모델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 근대 경험주의자 흠의 감성주의 철학이 오늘날 노년학에서 성공적 모델과 긍정적 노화 모델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는 이를 흠의 발전적 감성 개념에 기반 한 “지혜” 개념을 통해 논해 보겠다. 그 전에 다음 절에서는 창조적 노화 모델과 노년초월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창조적 노화 모델

노화를 설명하는 요소에서 특히 상상력, 창조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최근에 등장한 코헨의 ‘창조적 노화 모델’이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성공적인 노화’나 ‘긍정적인 노화’ 둘 다 모두 기능 감퇴와 손실로 규정되는 노화를 앞두고 어떻게 생존하고 변화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지만, 노화 자체가 장점이 나 해결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공적 노화 모델이든 긍정적 노화 모델이든 간에 그 두 모델 모두 어떻게 ‘성장’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활기차게’, ‘잘 하고’, ‘변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¹⁶⁾

코헨은 “모든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높은 목적의식, 성취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이 들을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능성, 즉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들에 주목했다.”¹⁷⁾ 코헨은 창조적 정신은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내면의 숨겨진 힘이라고 말하면서 “창조성

15) 안정신 외 (2011), p. 48.

16)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06.

17)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06.

은 모든 나이에,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주는 경험의 풍요로움이 창조적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다고 말한다.¹⁸⁾

코헨의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한 사례를 우리는 현대 영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이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예이츠의 노년은 “불타는 예술혼”으로 묘사 된다¹⁹⁾. 그는 평생 건강하지 못했으며, 말년에는 병이 있기도 했지만 그의 노년은 “늘 미소 짓는 넉넉하고 풍채 좋은 노인”, “정력적이고...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더 커진 정신적 선명성과 더 강해진 힘의 표정을 고양시키는 고결함과 매너의 매력을 성취”²⁰⁾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늙어가면서 쇠락하는 육신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많은 시인들이 다루는 주제이다. 예이츠도 그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는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에 대해 의식하고 그러한 육체의 한계에 대해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잘 반영한 작품이 [비잔티움의 항해] (1927)이다. 여기서 그는 육체를 넘어서는 정신세계에 대해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는 육체가 쇠락하는 대신 정신은 더욱 성숙하는 늙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1연에서 그는 젊음을 싱싱하고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였지만 이러한 화려하고 싱싱한 생명력은 늙음을 통해 소진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화려하고 싱싱한 생명력이 소진된 늙음에 대해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늙음이란 정말 하찮은 것
 나무 작대기에 넝마를 걸쳐놓은 것, 만일 영혼이
 손뼉 치며 노래하지 않는다면
 유한한 넝마의 모든 조각들을 위해서 더 소리 높여 노래하지 않는다면,

위 시에서 예이츠는 노년을 마치 막대기에 넝마를 걸쳐놓은 허수아비와

18) 아그로닌 (2018), p. 208.

19) 신원철 (2008), p. 104.

20) W. B. Norman Jeffares (1949), p. 277.

같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육신의 쇠락을 말하는 허수아비와 함께 성숙한 정신적 지혜는 영혼이 손뻐 치며 노래한다고 말한다. 신원철 (2013)은 이에 대해 “영혼의 성장이 없다면 노년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노인은 영혼의 깊이와 지혜를 보여줄 때 그는 비로소 그 육신의 쇠락을 대신할 생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²¹⁾ 신원철 (2008)은 많은 경우에 젊어서 좋은 시를 쓰던 시인들은 늙어서는 예지를 잃는다고 말한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워즈워드나 테니슨과 같은 시인들의 예로 든다. 이들은 늙어서는 새로운 표현법을 찾지 못하고 젊어서의 타성에 그대로 집착하다가 시적으로 죽어갔다.²²⁾ 이에 반해 에이츠는 “자신의 육체가 쇠락해가고 정신적 힘이 메말라 감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위기를 오히려 훌륭한 기회로 만들어 연어가 폭포를 뛰어오르듯 한 단계 더 높은 시의 세계로 상승했던 것이다.”²³⁾ 에이츠의 예는 코헨이 말한 ‘창조적 노화’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적 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창조성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후 이 논문에서 나는 흠의 ‘발전적 감성’이 창조성의 정의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노년학자 아그로닌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장애, 상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더 나은 상황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는데도 나이 듦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노인에게는 ‘회복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에 대처하고, 역경 뒤에 다시 일어나거나 균형을 되찾는 능력을 뜻한다.”²⁴⁾ 이 회복 탄력성의 토대는 세월과 연륜의 유산인 지식, 경험, 완숙함, 균형, 지혜이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 지식과 경험, 기술을 축적시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훈을 얻고 인내력과 판단력이 향상된다. 또한

21) 신원철 (2013), p. 341 참고.

22) 신원철 (2008), p. 104 참고.

23) 신원철 (2013), p. 104참고.

24)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149. 회복 탄력성에 관해 잘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teven Southwick and Dennis Charney (2012).

실패를 통해 겸손과 감사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력이 향상된다. 코헨은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창조성이 발달한다고 한다. 코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성은 모든 나이에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주는 경험의 풍요로움이 창조적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다.”²⁵⁾

우리는 노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인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흠에 따르면 창조에 대한 열망은 인간 본성에 있는 자연적 경향성이다. 흠의 말을 빌면,

“(……) 나는 인류의 지도에 공헌을 하고 나의 창안과 발견에 의해 명성을 얻고자 하는 야망이 내 안에 일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정감sentiment들은 현재의 나의 성향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²⁶⁾

흠에 따르면 후손에 남길 유산에 대한 야망과 열망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자 하는 정감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자연적 성향이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열망에 대해 코헨은 ‘발달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고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축적된 결합물과 시너지 효과가 발달지능이며 이런 발달 지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하고 깊어지며 한층 복잡하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도된다.²⁷⁾ 이후 이 글에서 나는 코헨이 말한 ‘발달지능’이 흠의 ‘발전적 감성’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나이 들의 장점을 논해 보겠다.

25) G. D. Cohen (2000), p. 17.

26) Hume (1978), p. 271.

27)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103 참조.

코헨은 창조적 모델을 통해 나이 들 그 자체가 창조성을 자극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변화를 촉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코헨의 창조적 모델은 노년의 주요 과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성찰하고 수용하며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에릭슨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에릭슨의 9단계 이론²⁸⁾과 달리 코헨은 ‘인간의 잠재력 단계’ 모델을 통해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관해 말하고자 했다. 이러한 단계에는 몇 가지가 중첩된다. 첫 단계는 3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의 ‘중년 재평가 단계’로서 이 단계는 ‘탐구 에너지’라고 불리는 힘을 활용해서 삶을 재평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동기를 찾는다. 그 다음 단계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사이에 있는 단계로서 코헨은 이를 ‘자유 단계’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절박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시기는 보통 퇴직 이후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무리 단계’는 60대 후반에서 90사이에 나타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세상에 기여하고 삶의 큰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코헨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는 ‘양코르 단계’로서 70대 후반에서 삶을 마무리 하는 순간에 걸친 단계이다. 코헨은 이 단계를 삶의 주요 활동을 재정립하고, 재확인하며, 기념하는 시기로 본다.²⁹⁾

창조적 노화 모델을 받아들이면 노화의 장점을 들여다보게 되고 노인을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에는 노인의 자질 중 지혜를 들 수 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부터 이미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³⁰⁾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서두에

28) 에릭슨의 9단계 이론은 다음절 [노년초월 모델]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29)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p. 223-224 참고.

30)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모든 사람이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주로 철학자들이며 대표적으로는 플라톤과 키케로를 들 수 있다.

서 이 저서의 저술의도를 “이미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다가올 노년이라는, 우리에게 닥친 공통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저술의 궁극적 목적을 “노년을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³¹⁾이라고 한다. 그는 노년의 부정적 측면은 활동성이 줄어들고, 신체를 허약하게 하며, 모든 쾌락을 빼앗아 가고,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각 단계에서의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통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은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³³⁾ 키케로의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하여 지혜를 형성하는 데에는 삶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년기로 갈수록 지혜가 더 발달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³⁴⁾ 나는 3장에서 이와 같은 주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흙의 철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아그로닌 (2018)은 ‘지식, 판단, 공감, 창조성, 통찰력’이라는 다섯 가지의 긍정적 특성은 나이가 드는 과정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이 다섯 가지가 합해지면 나이 듦의 가장 큰 선물인 지혜가 된다고 말한다.³⁵⁾ 아그로닌은 다섯 가지 긍정적 성향들에 따라 노년의 지혜를 ‘학자, 현자, 관리자, 창조자, 예지자’의 역할을 통해 발현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글에서 흙의 철학에 나타난 지혜의 의미를 소개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노년의 지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31)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32)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p. 29.

33)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p. 29

34) 물론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노인의 지혜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의 연구에 따르면 큰 재난 상황에서 노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던 이유가 노인들이 과학 기술 문명과 다소 거리가 있어 스마트 폰이나 전자 기술로부터 생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재난상황에 둔감한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35) 아그로닌 (2018), p.81 참조.

3. 노년초월 모델

노년의 지혜를 논하기 전에 노년 초월 모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년 초월Gerotranscendence’ 개념은 Erikson (1963)의 8단계 사회 심리적 발달단계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이론이다. 에릭슨Erik Erikson은 이 이론을 처음 제안할 당시 인간의 평균기대 수명을 60대로 설정하였는데, 그 후 그가 80, 90대를 경험하면서 이전 이론을 수정하였다. 여기에 Joan Erikson (1998)은 Erik Erikson이 수정한 내용에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의 아홉 번째 발달 단계를 포함시켜 9단계 이론을 제안하였다. 9단계 이론이 ‘노년 초월’이라 불리는 이유는 노년 후기에는 그 시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는 긍정적 발달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 발달이 ‘초월’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년기는 전 생애 과정 동안의 부정적 발달요소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성장으로 이끌 수도 있으므로 노년기 후반에 8단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⁶⁾

Erik Erikson이 제안한 8단계 이론에서 8단계의 특징은 절망에 대한 경험이다. 이 단계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온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Joan Erikson (1998)이 보완한 9단계에서는 노년기 후반을 회상적 절망보다는 이전 삶에 대한 만족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생활 능력의 상실과 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9단계에서는 일상생활 능력의 상실과 붕괴를 막기 위해 시각 전환이 필요한데 노년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초월transcendence”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9단계 발달 특성이라 본다.³⁷⁾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신체의 노쇠와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약해지므로

36) 안정신 (2015), p. 53.

37) 안정신 (2015), p. 53.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인의 가치를 지닌 노인의 자아를 발달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Tornstam (2005; 2011)은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9단계 발달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년초월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보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상위관점의 시각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Tornstam (2005; 2011)은 9단계에 해당하는 노인들과 질적 인터뷰를 통해 이 단계의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기능은 떨어지지만 인격이 성장하고, 죽음에 대한 시각이 변하였고, 자기중심성이 낮고 물질 소유에 대한 관심이 적고 타인과 다른 세대들과의 연대감을 느끼며 개인의 삶은 전체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시간, 공간, 삶과 죽음에 대해 달리 생각해 보고, 침잠적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한다. 토른스탐이 규정한 노년초월의 특징은 스토아학파의 세계관과 유사하며, 흠이 정념론에서 ‘차분한 정념’을 논할 때 그가 스토아학파와 자신을 대립시키면서 스토아의 이론을 변형시킨 것과 유사하다.

스토아학파는 우주와 자연의 목적은 사물의 구조 속에 있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욕망과 혐오와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도덕적 실재를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성적 능력을 선호하여 정념은 인간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스토아학파가 원하는 현재의 삶은 이성적인 삶이며 이성적인 삶은 모든 정념과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삶 - 즉 스토아주의적인 부동심의 삶으로 특징지어진다.³⁸⁾ 흠은 스토아학파가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차분한 정념이 이성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한다. 스토아학파가 현재의 삶을 이성적인 삶으로 규정하고 감정의 극복

38) 그렇다고 스토아가 현인을 전혀 인간적인 정념을 느끼지 않는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포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몇몇 감정들을 ‘적절한’ 또는 ‘좋은 감정’으로 허용한다. 이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 손병석 (2008)과 강성훈 (2010)을 참고하라.

즉 어떤 느낌들에 대한 영혼의 동의의 지속적인 거부로 봄으로써 이성과 감정을 대조시킨 것을 흠은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즉 흠은 현자의 삶과 유덕한 삶을 동일시하고 유덕한 삶을 위해서는 정념이 요구되는데 이때 이 정념은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³⁹⁾ 흠은 스토아학과처럼 현자는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여 부동심의 상태에 이른다고 말하기 위해 이성과 감정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념 중 ‘격렬한 정념’과 ‘차분한 정념’을 대비 시킨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흠의 차분한 정념과 행복에 관한 논의와 ‘노년 초월’의 비교 이전에 노년과 지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흠의 ‘발전적 감성 *progressive sentiment*’ 개념은 ‘창조적 노화’ 모델의 근간이 되는 ‘발달지능’과 유사함을 보이겠다. 또한 흠의 ‘발전적 감성’은 지혜를 노년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창조적 모델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III. 흠의 ‘발전적 감성’을 통해서 본 지혜의 의미와 노년의 지혜

1. 흠의 일상인의 지혜와 철학자의 지혜 구분

서양의 지혜 연구자로 대표되는 Adelt (2003)는 지혜 개념을 인지, 반성, 정서로 구분한다. 이 세 가지 구분을 통해 그는 지혜를 개인내적 또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삶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적

39) 양선이 (2015), p. 24 참고.

요인)과, 자기검토, 자기성찰, 현상과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능력 (반성적 요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정서적 요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⁴⁰⁾ 이 글에서 나는 흠의 발전적 감성 개념이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며 이러한 능력을 갖는데 있어 노년기는 강점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흠에게서 발전적 감성 개념이 어떻게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요소로 다 포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흠은 『인성론』1권 [오성에 관하여]에서 회의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장 <결론>장에서 오성understanding의 범위와 새로운 철학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흠의 오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말한 ‘이성reason’ 개념이 왜 발전적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흠이 말하는 오성understanding은 순수지성적인 좁은 의미의 이성intellect을 포함하여 상상, 기억, 사고, 정념, 반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흠이 몇 가지 의미의 이성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좁은 의미로 “데카르트적” 의미의 이성 개념으로서 “지적 직관과 증명의 능력”을 말한다. 흠은 사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이러한 의미의 이성 능력을 부정하였다. 즉 사실의 문제에 관한 신념들은 관찰에 기초하여 귀납추론을 통해 일반화한 습관의 결과이지 “이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¹⁾ 그와 같은 신념들이 ‘이성’에서 유래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때 이성은 증명과 추론을 하는 이성을 의미한다. 즉, 흠에 따르면, 사실에 관한 신념의 토대는 ‘상상력’이므로 세계에 관한 사실적 지식은 이성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2권 [정념에 관하여]에서 흠은 ‘이성reason’이라는 의미를 ‘진리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하는 더 확장되고 “생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0) M. Adelt (2003), pp. 275-324.

41) 양선이 (2016a), p. 84 참고.

나아가 제3권 [도덕에 관하여]에서 흄은 이성을 우리 동료와 말하고 행위를 하도록 돕고, 도덕적·미적 판단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수학적인 판단까지도 돕는 능력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⁴²⁾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이성’ 개념이 어떻게 넓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흄의 『인성론』은 제1,2,3권이 연결되어 있으며 점진적인 발전적 구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성’ 개념은 좁은 의미의 순수/지성적 의미에서 상상, 정념, 공감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흄에게서 ‘이성’ 개념은 1권에서 순수 지적 직관과 관련된 능력과 세계에 관한 사실적 믿음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상상’에서 더 나아가 ‘감성’ 그리고 ‘공감’을 포괄하는 확장적 의미로 진보한다.⁴³⁾ 흄의 발전적 감성 개념을 받아들이면 Adelt가 구분한 지혜 개념이 왜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발전적 개념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지혜는 노년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혜의 유형 중 철학자로서의 지혜는 일상인들과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흄도 이러한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구절이 있다. 그는 『인성론』 1권 4부에서 그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를 두 체계로 구분한다. 그는 세계에 관한 추상적이고 난해한 설명을 하는 철학적 체계와 사실과 실천에 관해 설명을 하는 일상인의 체계로 구분한다.⁴⁴⁾ 여기서 그는 이성을 통해 정당화를 시도하는 철학적 체계는 회의주의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흄은 [오성에 관하여]의 결론에서 이성 중심의 탐구로 인해 절망에 빠져 갖게 된 ‘철학적 우울함과 망상’(T 269)으로부터 그를 치유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자신이 극단적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동의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론하며, 논증하고,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42) 양선이 (2016a), p. 85 참고.

43) 양선이 (2016a), p. 85 참고.

44) Hume (1978), p. 216.

상식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연적 원리에 의거해서 습관적으로 추론하게 되는데, 흙은 이러한 원리가 형이상학자들이 고안해 내려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것보다 더 믿을만한 것이라고 한다. 흙에 따르면 우리가 회의주의에 건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덜 완전한 도구들, 예컨대, 자연적 경향성, 상상, 습관과 같은 자연적 원리들에 따라 탐구해야 한다.⁴⁵⁾

그리하여 그는 [오성에 관하여]의 결론 절에서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백게몬 게임과 같은 보드 게임을 즐기는 것(T 269)’을 권고한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철학자로서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또 다른 자연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쾌락에 마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철)학자에게 요구되는 본성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말하면서 (T 270-271) 『인성론』 1권을 끝낸다. 이렇게 『인성론』 1권 [오성에 관하여]에서 그는 일상인들의 지혜는 ‘경험’, ‘상상’, ‘습관’에 의존하는 반면 철학자들의 지혜는 경험에 토대를 두면서도 진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회의주의에 머물지 않고 계속 탐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 흙의 차분한 정념과 현자

노년의 지혜를 논하면서 아그로닌(2018) 현자의 지혜에 필요한 특별한 요소 중에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정, 가치, 목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자의 지혜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서 축적한 지식과 기술, 학자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미덕과 가치, 그리고 통찰이 더해 진 것이다. 현자는 (……) 배운 교훈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현명한

45) 양선이 (2015), p. 16 참조.

조언으로 제시한다. 현자에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직접 수없이 경험을 많이 반복하여 해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패턴 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경험적 보고가 있다.”⁴⁶⁾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뇌과학의 연구를 소개한다. 뇌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노년에는 두뇌의 감정 조절 중추인 안와내측 전전두피질이 두려운 감정을 유발하는 영역인 편도체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젊을 때 보다 더 잘 이행할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생각은 흠의 정념론에서도 발견된다. 흠은 『인성론』 제 2권 <정념론>에서 차분한 정념을 격렬한 정념과 대비시키고 현자는 “차분한 정념이 격렬한 정념을 지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강인한 정신strength of mind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T418).

흠의 ‘차분한 정념’에 대한 논의는 헬레니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주목하듯이 흠은 키케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⁴⁸⁾ 키케로(그리고 헬레니즘 철학 일반)에서 흠은 덕에 관한 추상적 개념들 간의 적합성이라기보다 감정적 평정을 통해 인간 행복을 정의하기 위한 모델을 발견했다.⁴⁹⁾ 흠은 키케로로부터 덕과 행복에 관해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노년에 대한 생각도 물려받은 듯하다. 키케로가 노년의 특징을 강인한 정신이라고 본 것을 흠은 받아들이면서 차분한 정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인한 정신, 현자라고 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흠의 철학에 따르면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토대로 가치와 감정에 대해 반성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노년에서 현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분한 정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다. 마음이 “차분한 상황에”

46)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92 참조.

47)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93 참조.

48) 예를 들어, Peter Jones (1979), pp. 161-180.

49) 흠이 헬레니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많은 서신들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Letter 1(1727), 과 Letter 3(1734) 참고. in *Letters*, Vol. 1

이르고 “완전히 평정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반대 정념들이 “조우”할 때(T 442), 즉 “어떤 정념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것의 반대를 일으키는 것은 곧 일어난 정념을 즉각 파괴시키는 것이고, 이 때 마음은 적어도 완전히 차분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T 278)하기 때문이다. 흠에 따르면 인간 행복을 위해서는 격렬한 정념을 제한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대되는 격렬한 정념이 서로 조우하는 상황, 예컨대 “알칼리와 산”이 섞여 중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⁵⁰⁾ 그는 정치적·종교적 관용을 논할 때 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정치적·종교적 관용을 논할 때 그가 온화함moderation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은 우선 논쟁적인 양쪽 다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다. 만약 독자들이 양쪽 다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결과 정념은 부드럽게 될 것이고 온화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쪽 편에 대한 다른 편의 모든 부당한 모욕과 승리를 막고 온화한 의견을 고무하고, 모든 논쟁에서 적절한 중간을 발견하고 반대가 때때로 옳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하고 우리가 양 쪽에 대해 부과하는 칭찬과 비난에 대해 균형을 유지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이라는 목적을 증진하는 방법은 없다(『에세이』 464)”.⁵¹⁾ 차분한/격렬한 정념 논의를 통해 흠은 두 반대되는 정념을 통해 마음이 완전한 평정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함으로써 관용을 말한다. 흠은 이러한 것을 정치적 관용에 대해 적용한다. 흠의 기념비적인 『영국사』에는 휘그당과 토리당의 반대주장들과 그러한 주장들을 고의적으로 균형을 잡음으로써 관용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 흠은 양쪽 편에 균형을 잡기를 열렬히 원해서 때때로 그는 양 쪽에 똑 같이 우위를 주기 위해 “휘그와 토리, 그리고 토리와 휘그”라고 번갈아 말하기도 했다(『편지』 1: 154).⁵²⁾

흠은 차분한/격렬한 정념의 대조를 통해 종교적 관용을 논한다. 예를

50) 양선이 (2015), p. 30 참고.

51) 양선이 (2016b), p. 211참고.

52) 양선이 (2016b) p. 211 참고.

들어 무지함에서 기인하는 미신과 통속 종교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격렬한 정념인 테러나 공포로 이끈다. 이러한 것들은 또 다시 격렬한 정념을 낳는다. 이와 반대로 세계에 관한 차분하고 과학적인 이해에 토대를 둔 참된 종교인 철학적 이신론은 관용으로 이끌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며 공적인 정신을 존중하고 격렬한 정념들을 통제하도록 돕는다.⁵³⁾

이러한 관점은 키케로가 열망했던 스토아적인 세계에 대한 명상 속에서 세계와의 일체감을 사회적 활동이 아닌 세계와의 일정한 거리두기와 자기 침잠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초월하고, 삶의 신비로운 부분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토아적 세계관은 오늘날 노인학에서 말하는 ‘노년초월’의 의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인생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불행하다. 이에 반해 차분한 정념은 다른 여타의 정념들 보다 항상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이다. 차분한 정념들은 때로 이성과 혼돈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지각할 수 있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흄은 이와 같은 마음의 평정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인한 정신the strength of mind’이라고 불렀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분한 정념이 격렬한 정념을 지배할 때 만이다.(T 417-8.) 흄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차분한 정념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즉 스토아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예교육(liberal arts)이 필요하다⁵⁴⁾고 말한다. 흄의 이와 같은 주장은 키케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키케로는 노년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그에 따르면 “너무 가난하다 보면 현자에게도 노년은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재물을 가졌다 해도 어리석은 자에게

53) 양선이 (2016b), p. 209 참고.

54) Hume (1987), Essays 6.

노년은 짐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년에 관한 최선의 무기는 학문을 닦고 미덕을 실천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⁵⁵⁾

IV.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흠이 차분한 정념의 상태, 즉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현자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흠이 이와 같은 상태와 노년을 직접 연결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18, 19세기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신사’ 계급에서 찾는 문헌들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에세이』의 ‘중류층의 삶’에서 소위 젠틀맨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해 말한다.⁵⁶⁾ 여기서 중류층이란 그 당시의 젠트리 계층을 의미하며, 소위 ‘젠틀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국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서 도덕적 그리고 취미의 기준이 되었다. 흠은 18세기 젠틀맨들의 의식에서 선택된 신념과 태도에 근거를 두고 도덕적 이상에 대한 명료화를 시도했다. 그 당시 젠틀맨들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궁극적으로 효용성의 원리를 따랐다. 그들은 친교를 통해 우정을 쌓는데, 이와 같은 우정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랑” 이라고도 말한다. 우정은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하고 불안한”(E 17)이라고 특징지어진 “불안하고 참을성 없는 정념”⁵⁷⁾ 인 사랑보다 우월하다. 신체적 노쇠로 인하여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인 사랑에 빠질 수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들이 수많은 글들 속에서 발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흠이 말했듯, ‘차분하고 조용한 사랑’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보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고 편안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55)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p. 23.

56) Hume (1987), p, 547.

57) Hume (1987), p. 189.

보고된다. 정영숙 (2011)은 그 이유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상당한 삶의 시간이 남겨져 있는 반면 노인들은 이미 많은 삶을 살아온 만큼 남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가능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⁵⁸⁾

현대 영시의 거목 예이츠는 말년에 병이 있기는 했지만 비평가들에 따르면 늘 미소 짓는 넉넉하고 풍채 좋은 노인으로 묘사된다. “나이 60이 되자 그는 늘 미소 짓는 공직자, 벨벳 코트를 입고 은박을 한 구두를 신고 거북 알의 안경에 리본을 부착하고 손가락에는 큰 금반지를 낀 노인 - 즉 몸 무게가 좀 붙은 우아한 대지주의 모양처럼 되어 있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훌륭하게 웃을 차려 입었다”⁵⁹⁾ 비평가들은 그의 시<비잔티움 항해>를 평가할 때 이에 관해 말한다. 여기서 그는 늙어가는 육체를 희화하고 육신이 쇠약 하는 대신 정신은 더욱 성숙하는 늙음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육신의 쇠락을 허수아비에 비유하고 이 허수아비와 함께 성숙한 정신적 지혜를 ‘영혼이 손뼉 치며 노래한다’고 표현한다. 즉 그에 따르면 영혼의 성장이 없다면 노년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노인은 영혼의 깊이와 지혜를 보여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쇠락을 대신할 생존할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늙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예이츠의 시각은 ‘노년초월’의 시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고결함과 매너는 흠이 ‘중류층의 삶’에서 표현한 ‘젠틀맨’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이츠에게서 흠이 말한 노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나는 나이 들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100세 시대의 노년의 삶의 교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피치 못할 변화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데 나이 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58) 정영숙 (2011), p. 27 참고.

59) Edward Malins (1974), p. 22.

과거는 자신의 재탄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⁶⁰⁾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나이 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유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삶에서 세월은 그들에게 용기와 더 큰 창조력을 가져다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재창조하는 과정은 삶을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지나온 길에서 최선을 찾고, 그 일부를 재정리하며, 수정하고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최선을 찾게 된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현재가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⁶¹⁾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나 퇴행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역할과 목표, 열정을 변함없이 추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누렸던 일부 조건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명했던 무용수의 경우를 보자. 나이 들으로써 신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는 그 무용수에게 과거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목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 양성 또는 안무 활동과 같은 일에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는 자신의 서사를 재창조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젊었을 때와 달리 더디게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의 장애 요소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사의 재창조 과정은 예술가의 삶이 아니라도 일상인으로서의 삶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노년에 상실을 겪고도 움츠러들고 쇠약해지지 않고 결연히 앞서 코헨이 말한 ‘양코르 단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60) 과거가 자신의 재창조의 발판이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그로닌 (2018), pp. 209-214를 참고하라.

61) 현재가 자신의 삶의 재창조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그로닌 (2018), pp. 214-228을 참고하라.

발견할 수 있다.

100세 시대에 ‘노년 초월’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창조적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년에 대해 참여자와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이 들은 쇠퇴와 쇠약의 시기가 아니라 삶의 재창조 시기이고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기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관찰자로서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나이 들에 대한 답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⁶²⁾

이상과 같은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성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창조성의 정의를 확장하는데 흠의 발전적 감성개념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62) 아그로닌, 신동숙 역 (2019), p. 228 참고.

참고문헌

- 마크 아그로닌 (2018), 신동숙 역 (2019), 『노인은 없다』, 한스 미디어.
- 조르주 미누아 (1987), 박규현·김소라 역 (2010),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 키케로, 천병희 역 (2016),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파주: 숲.
- 강성훈 (2010), 「스토아 감정이론에서 감정의 극복」,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이해』, pp. 63~94
- 손병석 (2008), 「무정념: 현인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실천」, 『철학연구』, 80.
- 신원철 (2008), 「에이츠의 노년과 지혜 그리고 가이어」, 『한국 에이츠 저널』, 29: 87-107.
- _____ (2013), 「에이츠와 엘리엇의 늙음에 대한 시각」, 『한국 에이츠 저널』, 42: 333~355.
- 안정신 (2015), 「Erikson의 9단계 노년초월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지역사회생활 과학지』, 26(1): 51~61
- 안정신 외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4: 35~54.
- 양선이 (2015), 「흠의 철학에서 행복의 의미와 치유로서의 철학」, 『철학논집』, 43: 9-39.
- _____ (2016a), 「흠의 인위적 덕과 ‘이성’ 개념을 통해서 본 여성주의 철학」, 『한국여성 철학』, 26: 73-101.
- _____ (2016b), 「흠: 회의, 공감 그리고 정의」, 『관용주의자들』, pp. 202~219.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 서 비교』, 지식산업사.
- 정영숙 (2011), 「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 23: 5~56.
- Adelt, M. (2003),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Baier, Annette. (1991), *A Progress of Sentiments: Reflections on Hume's Treati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G. D. (2000), *The Creative Age: Awakening Human Potential in the Second*

- Half of Life*, New York: HarperCollins.
- _____ (2005), *The Mature Mind: The Positive Power of the Aging Brain*,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H, (ed.)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H and Erikson. Joan M (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ith new chapters on the ninth stage*, New York: Norton.
- Greig, J. Y. T. (ed.) (1932), *The Letters of David Hume*, Oxford.
- Hume, David [1751] (1975),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L.A. Selby-Bigge, (ed.),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740]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 Selby-Bigge, (ed.),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889] (1987), *Essays, Morals, Political, and Literary*, Eugene F. Miller, (ed.), Indianapolis.
- Jeffares, W. B. Norman (1949), *Yeats: Man and Poe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Jones, Peter. (1979), “ ‘Art’ and ‘Moderation’ in Hume’s Essays”, in McGill Hume Studies, (ed.), *David Fate Norton, Nicholas Capaldi, and Wade Robison*, pp. 161-180, San Diego.
- _____ (1982), *Hume’s Sentiments: Their Ciceronian and French Connection*, Edinburgh.
- Malins, Edward (1974), *A Preface to Yeats*. Harlow, Essex: Longman Group Ltd
- Rowe JW, Kahn R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Saunders, Jason L. (ed.) (1966), *Greek and Roman Philosophy after Aristotle*, New York: The Free Press.
- Southwick Steven and Charmey Dennis (2012), *Resilience: The Science of Mastering Life’s Greatest Challeng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nstam L (2005), *Gerontranscendence - a developmental theory of positive aging*. New York. NY: Springer.
- _____ (2011), *Maturing into gerontranscendence*. *Transpersonal Psychology* 43, 166-180.

【Abstract】

Hume on Old Age, Wisdom and Happy Aging

Yang, Sunn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merits of aging through the “creative aging model” and to come up with a guideline for life in the age of 100. Accepting the creative aging model allows us to look into the benefits of aging and make the elderly a necessary being in society. In this article, I discuss wisdom among the qualities of the elderly as a basis for thinking like this. To this end, I first compare Hume's “progressive sentiment” model with “developmental intelligence,” and then show that Hume's “progressive sentiment” allows wisdom to be viewed as a strength of old age. Next, I suggest a new meaning for old age in the 100-year-old age by comparing Hume's "calm passion" and discussions on moderation with Thornstam's "Gerotranscendence" model.

【Keywords】 Creative Aging Model, Progressive Sentiment, Wisdom, Calm Passion, Gerotranscendence

논문 투고일: 2021. 03. 28

심사 완료일: 2021. 04. 15

게재 확정일: 2021. 04. 15